

< 교과서 수록 원문 >

8과 43쪽_詩中有畫 畫中有詩 원전

원문자료 해설

<교과서 43쪽> 詩中有畫 畫中有詩.

□위 문구는 소식의 시 <書摩詰藍田煙雨圖>에서 유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書摩詰藍田煙雨圖

마힐(왕유)의 「남전연우도」에 적다 - 蘇軾(소식)

味摩詰之詩，詩中有畫，觀摩詰之畫，畫中有詩. 詩曰：

藍谿白石出 쪽빛 시내에 하얀 돌이 드러나고
玉川紅葉稀 옥처럼 맑은 물에는 붉은 잎 드무네.
山路元無雨 산길에 본디 비 내린 적 없건만
空翠濕人衣 푸른빛 공기가 사람의 옷을 적시네.

此詩摩詰之詩. 或曰非也，好事者以補摩詰之遺.

▶ 摩詰(마힐)은 王維(왕유)의 자(字)이다. 동파(東坡) 소식이 시와 그림에 능숙했던 왕유를 평가하면서 한 말이다.

마힐의 시를 음미하면 시 속에 그림이 있고, 마힐의 그림을 보면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시에서 이르기를 : 풀이 위 참고

이 시는 마힐의 작품이다. 혹자는 아니다, 호사가들이 이것을 마힐의 유집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한다.

▶ 이후 味摩詰之詩，詩中有畫，觀摩詰之畫，畫中有詩. 왕유의 시를 보면 그림을 보는 듯하고, 왕유의 그림을 보면 시가 연상된다는 의미로 “詩中有畫 畫中有詩”가 널리 회자되었다.

□ 이제 시를 분석해 보자.

藍谿白石出 쪽빛 시내에 하얀 돌이 드러나고
玉川紅葉稀 옥처럼 맑은 물에는 붉은 잎 드무네.
山路元無雨 산길에 본디 비 내린 적 없건만
空翠濕人衣 푸른빛 공기가 사람의 옷을 적시네.

▶ 1구에서는 시내에 돌이 보인다. 시냇물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물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에서 시기적으로 가을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을 푸른빛 도는 계곡과 물 밑의 흰 돌을 표현하고 있다.

▶ 2구에서는 물과 낙엽이 등장한다. 물은 옥처럼 맑고 낙엽은 붉다. 백색과 적색의 차이가 존재한다. 동시에 가을에 물이 줄어들 듯이 이제는 붉은 낙엽도 적다. 색상의 대비와 더불어 적다는 동질감을 통해 쓸쓸함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 3구에서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다음 구의 空翠(공취)를 강조하기 위한 기법으로 보인다.

▶ 4구에서는 空翠가 옷을 적신다고 말한다. 空翠는 푸른 하늘로 푸른 빛의 맑은 기운(공기)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시어이다. 계곡에 푸른 기운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다고 느꼈기에 그 기운이 옷을 적신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

□ 시의 배경: 가을, 가을 산 계곡

□ 시의 주제: 가을 산의 맑고 싱그러운 정취